

豆莫婁國의 역사와 그들의 夫餘 出自 의식

이승호*

- I. 머리말
- II. 豆莫婁國과 北夫餘
- III. 豆莫婁國의 夫餘 出自 의식
- IV. 6~8세기 豆莫婁國의 동향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국 정사에 보이는 豆莫婁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두막루의 역사와 그들의 夫餘 出自 의식이 형성된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魏書』는 두막루를 ‘舊北扶餘’라 기록하고 있으며, 『新唐書』에서는 두막루인들이 스스로를 ‘北扶餘之裔’라 칭하였다고 전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魏書』 豆莫婁國條를 분석하여 해당 기사가 단순히 前代 사서의 부여 기사 재인용한 것이 아니라 당대 두막루 사회의 실상을 일정 부분 반영한 기록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두막루는 485년 무렵 이미 북위와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있었으며, 494년 멸망한 부여 왕실과 병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어서 『新唐書』의 “高麗滅其國, 遣人度那河” 기사를 검토하여, 이를 광개토왕의 동부여 정벌이 아니라 4세기 전반 고구려의 吉林市 일대 진출 과정과 관련된 사건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두막루는 고구려의 공세를 피해 동류 송화강 이북으로 이동한 부여 사회의 일부 주민집단이 자립하여 형성한 정치체로 파악하였다. 또한 두막루의 언어가 失韋·庫莫奚·契丹 등과 같았다는 기록에 주목하여, 두막루를 구성한 집단이 종족적으로는 북방계 주민이면서도 정치적·문화적으로는 부여 전통을 계승한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나아가 두막루인들의 부여 출자 의식은 부여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HK교수. owl-sh@hanmail.net.

문화에 대한 기억과 전통의 계승 의식, 그리고 중원 왕조와의 외교적 필요성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결국 두막루는 북방계 주민집단이 부여의 정치적 전통과 역사적 기억을 계승하며 형성한 정치체였으며, 이후 물길·말갈·흑수말갈 중심의 지역 질서 속에서 점차 말갈화되어 역사 속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두막루, 부여, 북부여, 물길, 말갈, 흑수말갈, 出自意識

I. 머리말

4세기 이후 동북아시아 북방 지역은 고구려의 팽창과 물길 세력의 성장, 그리고 이에 따른 종족 집단의 이동과 재편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특히 오랫동안 만주 일대의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존속하였던 夫餘는 3세기 후반 이후로 慕容鮮卑의 공세와 고구려의 압박, 북방 세력의 남하 속에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고, 마침내 494년 고구려에 귀부하면서 역사상에서 소멸하였다. 그러나 부여가 멸망한 이후에도 그 계통과 전통을 계승하였음을 자처하는 여러 집단의 존재는 계속 확인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5세기 후반 무렵부터 중국 사서에 출현하는 豆莫婁이다.

두막루는 『魏書』·『北齊書』·『新唐書』 등의 기록에 보이는 북만주 일대의 정치집단으로, 사서에서는 이들을 “舊北扶餘” 혹은 “北扶餘之裔”라 전하고 있다. 특히 『魏書』 豆莫婁國 조는 그들의 풍속과 官制, 사회 모습 등을 상세히 전하면서 상당 부분 이전 시대의 부여 관련 기사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오래전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에서는 두막루를 부여 유민 국가로 이해하거나, 혹은 부여의 직접적인 계승 세력으로 파악하였다(김정배, 1991: 71-72; 이종수, 2018: 48-49).¹⁾ 또 한편에서는 두막루가 고막해 등과 유사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기록에 주목하여 이들을 몽골계 종족으로 추정하고 모용선비의 부여 침공 당시 부여가 송화강 유역의 통제력을 상실한 틈을 타서 유입된 집단이라고 본 견해도 제기되었다(박경철, 1992: 69-72). 그리고 최근에는 두막루와 부여 간에 실제 종족적 친연성이 있었다기보다는

1) 두막루의 기원과 관련하여 김정배는 고구려의 410년 부여 방면 침공으로 인해 부여 세력 일부가 눈강·동류 송화강을 건너 송눈평원 일대에 정착한 집단으로 이해하였고, 이종수는 494년 물길의 남하로 부여가 멸망하자 북류 송화강 하류에 거주하던 부여계 주민집단 일부가 눈강·동류 송화강을 넘어 두막루국을 세웠다고 보았다.

두막루 지배층 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부여와의 친연성이 표방된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제시되고 있다(이종록, 2026: 132-138).

그런데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두막루에 관해 ‘부여의 후예’라는 그들 주장의 사실성 여부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정작 왜 이들이 스스로를 ‘북부여의 후예’라고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출자의식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들 고유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자세히 검토되지 못하였다. 특히 『魏書』豆莫婁國 조의 기록이 단순히 前代의 부여 기사 재인용인지, 혹은 당시 두막루 사회의 실제 상황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역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新唐書』에 보이는 “高麗滅其國, 遣人度那河”라는 기록은 두막루의 형성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두막루 사회의 형성 배경을 주로 광개토왕 시대 동부여 정벌과 연관 지어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당시 부여와 두막루의 병존 관계 및 사료의 시간적 층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두막루의 형성은 4세기 전반 고구려의 북방 진출 과정 속에서 吉林市 일대 부여 세력의 일부가 북쪽으로 이동하였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魏書』豆莫婁國條의 기록을 중심으로 두막루와 부여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이어 『新唐書』 등의 관련 기록을 통해 두막루인들의 ‘夫餘 出自 의식’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막루가 단순한 부여의 잔여 세력이 아니라, 북방계 주민 집단이 부여의 정치적 전통과 역사적 기억을 계승하며 자립한 정치체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검토를 통해 5~7세기 북만주 지역의 종족 이동과 정치질서 재편 속에서 두막루의 역사 전개를 살피고, 나아가 그들이 지녔던 부여에 대한 역사적 계승의식의 형성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II. 豆莫婁國과 北夫餘

5세기 후반 북류 송화강 일대로 남하하는 물길의 공세에 위기에 빠진 부여 왕실은 494년 끝내 고구려에 완전히 귀부하며 700여 년을 이어온 왕국의 문을 닫았다. 그런데 이처럼 부여가 그 역사의 종막을 향해 가던 5세기 후반, 북만주 일대에서는 그들의 후예를 자처하던 세력이 등장하였다. 豆莫婁 혹은 達末婁·達莫婁·大莫盧·大莫婁 등

으로 불리었던²⁾ 이들은 北魏 太和 9년(485)부터 唐 玄宗 開元 11년(723)까지 사서 상에 2백여 년을 넘게 존속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료 (가)

豆莫婁國은 勿吉國 북쪽 千里에 있으며, 낙양으로부터 6천리 떨어져 있는데, 舊北扶餘이다. 失韋의 동쪽에 있으며, 동쪽은 바다에 이르고, 사방 2천여 리이다. 그 사람들은 토착 생활을 하며, 宮室과 倉庫가 있다. 山陵과 廣澤이 많고, 東夷 지역에서 가장 平敞하다. 토지는 五穀에 적당하며, 五果는 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체구가] 長大하고, 성품은 彊勇하고 謹厚하여, 寇抄하지 않는다. 그 君長은 모두 六畜으로 官의 이름을 짓고, 邑落에는 豪帥가 있다. 먹고 마심에는 또한 俎豆를 사용한다. 麻布로 만든 옷을 입는데, 그 제도는 高麗와 유사하고, [소매] 폭이 크다. 그 나라의 大人은 金銀으로 치장한다. 用刑에 嚴急하여, 살인한 자는 죽이고, 그 집안사람은 적몰하여 奴婢로 삼는다. 풍속이 음란하며 투기는 부인을 특히 싫어하여, 투기한 자는 죽이고, 시신을 나라의 남쪽 산 위에서 썩을 때까지 놓아두는데, 여자 집에서 [시신을] 얻고자 하면, 소와 말을 보내야 시신을 준다. 혹은 본래 穢貊의 땅이라고 한다.³⁾

(『魏書』 卷92, 列傳 88, 豆莫婁國 條)

사료 (가)는 『魏書』 列傳에 실려 있는 두막루 관계 기사로서, 여기서는 두막루를 舊北扶餘라고 하며, 그들이 사는 땅도 본래 穢貊의 땅이었다고 전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관한 기록 또한 기사 초반 그 위치에 대한 설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三國志』 東夷傳 夫餘條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때문에 이 『魏書』 列傳 豆莫婁國條의 기사는 그 위치와 강역을 전하는 서두 다섯 구절이 추가되었을 뿐, 나머지 기사는 전부 『三國志』 東夷傳 夫餘條의 기록을 축약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馮家昇, 1937: 195; 김정배, 1991: 71-72)⁴⁾. 또한 두막루의 존재와 위치 등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도 勿吉 사신을 통해 입

2) 豆莫婁의 어원에 대해 일찍이 馮家昇은 그 음가가 ‘對盧’와 비슷함을 들어 고구려 對盧의 異譯으로 보았다(馮家昇, 1937). 魏國忠 또한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며, 사서 상에 보이는 豆莫婁의 이칭인 大莫盧, 達末婁 등이 사실 豆莫婁와는 음역이 같지 않으며, 오히려 그 실체는 모두 對盧의 同名異譯으로 고구려 對盧가 豆莫婁의 어원이 된다고 하였다(魏國忠, 1982: 139). 또 이밖에 豆莫婁의 어원을 貊(Bokuli)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거나(張博泉, 1982: 35), 고구려語 ‘多勿’에서 유래하였다는 견해(유태웅, 2004: 145)가 제기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의견들 모두 ‘두막루’의 音價를 통한 추정일 뿐, 두막루의 어원을 확정할 뚜렷한 논거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 『魏書』 卷92, 列傳 88, 豆莫婁國條, “豆莫婁國, 在勿吉國北千里, 去洛六千里, 舊北扶餘也. 在失韋之東, 東至於海, 方二千里. 其人土著, 有宮室倉庫. 多山陵廣澤, 於東夷之域最爲平敞. 地宜五穀, 不生五果. 其人長大, 性強勇謹厚, 不寇抄. 其君長皆以六畜名官, 邑落有豪帥. 飲食亦用俎豆. 有麻布衣, 制類高麗而幅大. 其國大人, 以金銀飾之. 用刑嚴急, 殺人者死, 沒其家人爲奴婢. 俗淫, 尤惡妬婦, 妬者殺之, 尸其國南山上至廬. 女家欲得, 輸牛馬乃與之. 或言本穢貊之地也.”

4) 김정배는 『魏書』 列傳 豆莫婁國條와 『三國志』 東夷傳 夫餘條 기록이 유사함을 들어 豆莫婁國이 부여와 시기를 달리하여 건국되었을 뿐, 실질적인 역사의 내재된 흐름은 기왕의 부여 역사가 주류를

수한 것이라 보는 의견도 있다(馮家昇, 1937: 196).

하지만 양자의 기록을 자세히 비교하여 살펴보면, 『魏書』列傳 豆莫婁國條가 『三國志』東夷傳 夫餘條의 기사를 단순히 찬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축약기만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예컨대 『三國志』東夷傳 夫餘條 기사에 해당 구절과 비교하면⁵⁾ 『魏書』列傳 豆莫婁國條의 “그 사람들은 토착생활을 하며, 宮室과 倉庫가 있다.”는 기록에는 ‘牢獄’의 존재가 빠져 있으며, “그 君長은 모두 六畜으로 官의 이름을 짓고, 邑落에는 豪帥가 있다.”는 구절 또한 郡王의 존재를 명시한 『三國志』의 해당 구절과 차이가 있다. 또 “麻布로 만든 옷을 입는데, 그 제도는 高麗와 유사하고, [소매] 폭이 크다.”는 기록은 『三國志』나 『後漢書』의 부여 관련 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 구절이다. 특히 이처럼 北魏 측 기록에 두막루인의 의복에 관한 특징이 묘사될 수 있었던 것은 후술하듯이 두막루국의 사신 파견과 같은 과정을 통해 北魏와 두막루인이 직접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상정케 한다.

결국 두 문헌에 나타나는 이러한 기록 상의 차이를 통해 볼 때, 『魏書』의 찬자는 두막루국과 부여의 계승 관계를 인식하면서도 분명 부여와 두막루국 간에 보이는 차이점 또한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三國志』東夷傳 夫餘條에 보이는 “나라에는 郡王이 있고, 모두 六畜으로 官의 이름을 지었는데, 馬加·牛加·豬加·狗加·大使·大使者·使者가 있다.”라는 기록과 비교하여 『魏書』列傳 豆莫婁國條의 해당 구절에는 王의 존재를 거론하지 않은 채, “그 君長은 모두 六畜으로 官의 이름을 짓는다.”고 하였던 것은 그만큼 당시 두막루국의 諸부족을 통괄하는 집권력을 갖춘 郡王이 부재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邑落에는 豪民이 있고, 下戶라 불리는 이들은 모두 奴僕이 된다.”는 『三國志』東夷傳 夫餘條 기사에 대비하여 『魏書』列傳 豆莫婁國條에서는 다만 ‘豪帥’의 존재만을 거론하고 있는 부분도 두 사회 간에 차이점이 반영된 기록일 가능성이 크다.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았다(김정배, 1991: 72).

5)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傳 夫餘條, “戶八萬, 其民土著, 有宮室·倉庫·牢獄, 多山陵·廣澤, 於東夷之域最平敞. 土地宜五穀, 不生五果. 其人麤大, 性彊勇謹厚, 不寇鈔. 國有君王, 皆以六畜名官, 有馬加·牛加·豬加·狗加·大使·大使者·使者. 邑落有豪民, 名下戶皆爲奴僕. 諸加別主四出道, 大者主數千家, 小者數百家. 食飲皆用俎豆, 會同·拜爵·洗爵, 揖讓升降. 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飲食歌舞, 名曰, 迎鼓. 於是時斷刑獄, 解囚徒. 在國衣尙白, 白布大袂, 袍·袴, 履革鞋. 出國則尙繒繡錦罽, 大人加狐·狸·狢·白黑貂之裘, 以金銀飾帽.”

『後漢書』卷85, 列傳 75, 東夷列傳 夫餘國條, “以貝柵爲城, 有宮室·倉庫·牢獄. 其人麤大彊勇而謹厚, 不爲寇鈔. 以弓矢刀矛爲兵. 以六畜名官, 有馬加·牛加·狗加, 其邑落皆主屬諸加. 食飲用俎豆, 會同拜爵洗爵, 揖讓升降. 以臘月祭天, 大會連日, 飲食歌舞, 名曰, 迎鼓. 是時斷刑獄, 解囚徒. 有軍事亦祭天, 殺牛, 以臠占其吉凶. 行人無晝夜, 好歌吟, 音聲不絕. 其俗用刑嚴急, 被誅者皆沒其家人爲奴婢. 盜一責十二. 男女淫皆殺之, 尤治惡妒婦, 既殺, 復尸於山上. 兄死妻嫂. 死則有無棺. 殺人殉葬, 多者以百數. 其王葬用玉匣, 漢朝常豫以玉匣付玄菟郡, 王死則迎取以葬焉.”

이렇게 볼 경우 적어도 『魏書』의 豆莫婁國條 기사는 『三國志』의 부여 기록을 단순히 축약한 것이 아니라, 빈약하나마 일부 두막루와 관계된 당대의 정보에 기초하여 『三國志』의 관련 기록을 당시 상황에 맞게 수정·축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魏書』 列傳 豆莫婁國條의 기록은 일정부분 당대 두막루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료 (가)에서는 두막루에 대해 ‘舊北扶餘’라 하고 또 그 기사 말미에도 “본래 穢貊의 땅이라고 한다.”고 하여 그들이 ‘북부여’ 곧 부여의 후예임을 전하고 있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기사에서처럼 494년 부여가 멸망⁶⁾한 이후 두막루가 건국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馮家昇, 1937: 197; 張博泉, 1982: 37).

사료 (나)

勿吉國은 高句麗 북쪽에 있으며, 옛 肅慎國이다. 읍락에는 각자 우두머리가 있으며, 서로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군세고 사나우며, 東夷에서 가장 강력하였다. 언어는 홀로 다르다. 항시 豆莫婁 등의 나라를 가볍게 보았으니, 여러 나라 역시 이를 격정하였다. …(중략)… [太和] 9년(485) 다시 사신 侯尼支를 보내 朝獻하였다. 明年에 다시 入貢하였다. 그 주변에는 大莫廬國·覆鍾國·莫多回國·庫婁國·素和國·具弗伏國·匹黎余國·拔大何國·郁羽陵國·庫伏真國·魯婁國·羽真侯國이 있는데, 전후로 각각 사신을 보내 朝獻하였다.⁷⁾

(『魏書』 卷100, 列傳 88, 勿吉國條)

하지만 위의 사료 (나)의 뒷부분을 보면, 부여의 역사가 종막을 고하기 대략 10년 전인 485년을 전후하여 당시 北魏에 조공을 온 勿吉 주변의 여러 세력들 가운데 ‘大莫廬國’, 즉 두막루국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미 5세기 후반이 되면 두막루는 당시 고구려에 종속되어 그 명맥만을 간신히 유지하던 부여 왕실과 별개로 중원왕조와 독자적인 교섭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魏書』의 찬자들이 입수한 두막루에 대한 정보는 이러한 양자의 교섭을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확보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⁸⁾

한편, 사료 (나)의 앞부분을 보면, 당시의 두막루 또한 부여와 마찬가지로 東夷의

6)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7, 文咨明王 3年 條, “三年, 春正月, 遣使入魏朝貢. 二月, 扶餘王及婁奴, 以國來降.”

7) 『魏書』 卷100, 列傳 88, 勿吉國條, “勿吉國, 在高句麗北, 舊肅慎國也. 邑落各自有長, 不相總一. 其人勁悍, 於東夷最強. 言語獨異. 常輕豆莫婁等國, 諸國亦患之. …(中略)… 九年, 復遣使侯尼支朝獻. 明年復入貢. 其傍有大莫廬國·覆鍾國·莫多回國·庫婁國·素和國·具弗伏國·匹黎余國·拔大何國·郁羽陵國·庫伏真國·魯婁國·羽真侯國, 前後各遣使朝獻.”

8) 선행 연구에서도 北魏가 豆莫婁의 위치 등을 알게 된 것은 豆莫婁 사절의 보고를 통해서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魏國忠, 1982: 137; 김정배, 1991: 72)

‘最强’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급속히 세력을 팽창해가던 勿吉의 압박으로 고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물길은 북류 송화강 유역으로 급속히 세력을 확대해 나가며 오늘날 吉林省 일대 이북으로부터 동류 송화강 유역 이남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이종수, 2011: 30). 사료 (가)에서 두막루가 물길 북쪽 천리 부근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두막루는 이러한 물길 세력에 쫓겨 북방으로 밀려났던 것으로 추측된다. 즉 당시 두막루는 물길을 가운데 두고 오늘날 農安縣 부근에서 명맥을 이어가던 부여 본국과 교통이 완전히 차단되었던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485년 무렵 처음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두막루는 5세기 후반 물길의 공세 속에 멸망을 목전에 두었던 부여와 짧게나마 병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 (가)의 『魏書』 列傳 豆莫婁國 조에서는 두막루에 대해 舊北扶餘라 적고 있다. 여기서의 北扶餘는 곧 부여를 말하는 것으로서(이승호, 2024: 190) 이들은 5세기 후반 무렵에는 고구려의 보호 아래 494년 멸망 직전까지 農安縣 부근에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었다(이승호, 2020: 148-149). 그렇다면 두막루국은 언제 어떠한 배경 속에서 나타났고, 또 農安縣 일대에 북부여가 존속하는 5세기 후반 무렵에 두막루가 ‘舊北扶餘’라 불리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Ⅲ. 豆莫婁人の 夫餘 出自 의식

먼저 아래의 기록을 보면, 두막루가 북부여로 불리었던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사료 (다)

開元 11년(723)에 또 達末婁와 達姁 2部 首領의 조공이 있었다. 달말루는 스스로 말하길 북부여의 후예라고 한다. 高麗가 그 나라를 멸하자, 遣人들이 那河를 건너가 그곳에 거주했다. 혹은 他漏河라고도 하는데, 동북쪽으로 흘러 黑水로 들어간다. 達姁는 室韋 종족이다. 那河 남쪽, 湍末河 동쪽에 있으며, 서쪽으로 黃頭室韋와 접하며, 동북쪽으로는 달말루에 이른다고 하였다.⁹⁾

(『新唐書』 卷150, 列傳 145, 東夷傳 流鬼條)

9) 『新唐書』 卷150, 列傳 145, 東夷傳 流鬼條, “開元十一年, 又有達末婁、達姁二部首領朝貢。達末婁自言, 北扶餘之裔。高麗滅其國, 遣人度那河, 因居之。或曰他漏河, 東北流入黑水。達姁, 室韋種也。在那河陰, 湍末河之東, 西接黃頭室韋, 東北距達末婁云。”

여기서는 두막루인들이 자신들을 북부여의 후예라 자언하고 있는데, 그들은 본국인 부여가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자 那河를 건너가 거주했다고 한다. 여기서 고구려에게 멸망을 당한 부여는 물론 農安縣 일대의 부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農安縣 부근에 있었던 부여의 마지막 왕조와 두막루는 적어도 485년 이전 어느 시점부터 부여가 멸망하는 494년 사이 약 10년 이상 병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당시의 부여는 고구려의 침략에 의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압박 속에 스스로 나라를 들어 고구려에 귀부하였다. 즉 여기서 말하는 부여의 멸망이 農安縣 일대 부여와 관련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高麗가 그 나라를 멸하자, 遣人들이 那河를 건너가 그곳에 거주했다.”는 기록은 언제의 일을 말하는 것일까. 대체로 많은 연구자들이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고구려의 동부여 정벌을 지적하고 있다(于志耿, 1984: 4; 李健才, 1986: 35-36; 김정배, 1991: 76-77). 즉 410년 광개토왕 시대 고구려가 부여를 공격함으로써 부여인들이 흩어지고 그중 일부가 두막루국을 건국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고구려의 410년 정벌 기사는 두만강 일대에 존재하던 동부여에 대한 군사행동이지 吉林市 일대나 農安縣 일대에 있었던 부여에 대한 정벌은 아니었다(이승호, 2024: 183-190). 따라서 이러한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뿐이다. 즉 이는 330년대 중반 고구려가 부여로부터 吉林市 일대를 강탈하였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즉 4세기 전반 吉林市 일대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부여 왕실은 왕도를 포기하고 지금의 農安縣 부근으로 거점을 옮기게 되었는데(여호규, 1995: 20; 여호규, 2000: 49-50), 이 무렵 吉林市 지역 이북의 일부 부여 세력은 고구려의 공세를 피해 那河를 건넜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부터 부여 왕실과 지리적으로 격절된 이들은 이후로 모용선비와 고구려, 勿吉 등의 연이은 공세와 압박 속에 점차 쇠잔해가는 부여로부터 자립하여 두막루로서 역사를 전개해 나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두막루인들의 거주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였으며, 그들이 고구려의 공세를 피해 건넜다는 那河는 어느 강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사료(다)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당시 두막루와 인접해 있던 達婁의 위치에 대해 기록에서는 “那河 남쪽, 漣末河 동쪽에 있으며, 서쪽으로 黃頭室韋와 접하며, 동북쪽으로는 달말루에 이른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의 漣末河를 漣末河의 오기로 곧 粟末水를 지칭하는 것이라 본다면(李德山·樂凡, 2003: 176), 漣末河는 북류 송화강을 말하는 것이 된다. 즉 당시 達婁는 북류 송화강의 동쪽, 那河 남쪽에 위치한 것이 되므로 자연 那河는 동류 송화강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경우 당시

두막루는 동류 송화강 이북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판단된다.¹⁰⁾

한편, 『魏書』列傳 豆莫婁國條에서 두막루에 대해 ‘舊北扶餘’라 한 것에 착안하여 이 北扶餘를 橐離國으로 간주하고 두막루인들이 嫩江 하류의 옛 橐離國 지역으로 이동하여 나라를 건국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于志耿, 1984: 6-7; 김정배, 1991: 78). 그러나 부여 동명 신화 속 橐離國의 존재를 긍정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역사는 기원전 시기에 전개된 일이다. 기원전 역사 속 국가를 기원후 5세기 후반에 가서야 국제 사회에 모습을 보이는 두막루와 연결 지어, 두막루인들이 北扶餘 혹은 橐離國에 대한 계승 의식을 지니고 있다거나 주변국들이 그들을 옛 橐離國 혹은 ‘舊北扶餘’라고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은 너무 무리한 추론이다. 또한 여러 사료 속에 나타나는 ‘북부여’라는 이름과 橐離國을 동일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이승호, 2024: 188-189) 이러한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앞서의 사료 (다)에서처럼 두막루는 북류 송화강 동쪽과 동류 송화강 남쪽에 위치한 達婁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嫩江 하류 유역으로 보기도 힘들다. 결국 해당 기록에서의 ‘北扶餘’는 곧 吉林市 일대에 존재했던 夫餘를 ‘北夫餘’로 인식하였던 고구려인의 인식을 그대로 수용한 표현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노태돈, 1999: 519).

이렇게 본래 부여 지역에서 이탈하여 동류 송화강 이북으로 이동한 두막루인들은 5세기 중반 무렵 동류 송화강 이남으로 침투해 들어오던 勿吉 세력에 의해 본국과의 교통이 완전히 단절되자 그대로 자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료 (라)

失韋國은 勿吉 북쪽 千里에 있으며, 낙양으로부터 6천리 떨어져 있다. …(중략)… 언어는 庫莫奚·契丹·豆莫婁國과 같다.¹¹⁾

(『魏書』卷92, 列傳 88, 失韋國條)

위의 기록은 두막루국조가 실려 있는 같은 『魏書』열전의 失韋國條 기록 중 일부인데, 그들의 언어가 庫莫奚, 契丹과 함께 豆莫婁國과도 같았다고 전한다. 이처럼 두막루의 언어가 失韋와 같다는 점에 대해 당시 두막루인들이 이미 부여에서 이탈한지 오

10) 두막루의 위치에 대해서는 일찍이 黑龍江과 松花江의 합류점 이북 지역에서 찾는 견해(白鳥庫吉, 1910-1913 ; 白鳥庫吉, 1970: 223-224; 張博泉, 1982: 37)와 하얼빈 일대로 보는 견해(津田左右吉, 1915; 津田左右吉, 1964: 29), 那河를 嫩江에 비정하고 두막루의 중심지를 오늘날 嫩江縣(黑爾根) 부근에 비정하는 견해(馮家昇, 1937: 200)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근래에는 동류 송화강 이북 지역에서 두막루의 위치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李健才, 1986: 38; 董萬倫, 1987: 106; 李德山·樂凡, 2003; 유태용, 2004: 147).

11) 『魏書』卷92, 列傳 88, 失韋國條, “失韋國, 在勿吉北千里, 去洛六千里. …(中略)… 語與庫莫奚·契丹·豆莫婁國同.”

래되어 失韋, 庫莫奚, 契丹 등과 동화된 결과라는 의견이 많았다(김정배, 1991: 79; 유태용, 2004: 152-153).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언어는 곧 그들의 종족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는 두막루국을 구성한 옛 부여인들의 종족적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즉 두막루국을 구성한 부여인들이 본래 부여의 북방, 즉 길림시 일대 이북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이라면, 이들을 예맥족과는 계통을 달리하면서 부여 세력권 북쪽에 거주하였던 종족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5세기 후반 사서 상에 등장한 두막루인들은 본래 失韋, 庫莫奚, 契丹 등과 종족적 계통을 같이하면서도 일찍부터 부여 세력권 내에 포섭되어 부여국을 구성하였던 이들이었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이들이 那河(동류 송화강)를 넘어 북방으로 이주해 간 뒤에도 여전히 북부여의 후예를 자임하며 부여의 遺俗도 일부 계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5세기 후반 두막루국이 北魏로부터 ‘舊北扶餘’로 인식되었고, 唐代에 이르기까지 그들 스스로 ‘北扶餘之裔’를 자칭하였던 데에는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일정한 정치적 의도도 작용하였을 것이다(이종록, 2026: 132-138). 한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여는 당시 중원 왕조로부터 東夷 세계의 모범적 번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한상현, 2023: 343-344). 그렇다면 북위와 唐에 사절을 파견하였던 두막루인들 역시 ‘부여’라는 이름이 지닌 이러한 정치적·외교적 상징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 인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부여 문화에 대한 기억을 적극적으로 환기하고, 스스로를 그 계승자로 표방함으로써 중원 왕조와의 외교 관계에서 일정한 이점을 확보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魏書』 두막루국조에 전하듯 두막루인들이 실제로 부여의 遺俗을 일정 부분 계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부여에 대한 계승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 前代의 문화와 전통이 실제적으로 해당 사회에 이어지고 있다는 관념 자체가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훗날 발해가 스스로 부여의 유속을 계승하였음을 내세운 사례에서도 확인된다.¹²⁾ 결국 두막루인들의 부여 출자 의식은 단순한 정치적 표방에 그친 것이 아니라, 부여 문화에 대한 기억과 전통의 계승 의식, 그리고 대외적 정치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두막루인들의 부여 출자 의식은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과 기억, 그리고 정치적 필요성 속에서 형성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12) 『續日本紀』卷10, 聖武天皇 神龜 5年 春正月, “甲寅, 天皇御中宮, 高齊德等上其王書并方物, 其詞曰, 武藝啓 … 武藝忝當列國, 濫摠諸蕃. 復高麗之舊居, 有扶餘之遺俗.”

IV. 6~8세기 豆莫婁國의 동향

이후 두막루의 역사적 동향과 관련하여 조금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기록들이 확인된다.

사료 (마)

(567년) 겨울 10월에 突厥·大莫婁·失韋·百濟·靺鞨 등의 나라들이 각기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¹³⁾

(『北齊書』 卷8, 帝紀 8, 後主 3年 10月條)

사료 (바)

(569년 2월) 癸酉에 大莫婁國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¹⁴⁾

(『北齊書』 卷8, 帝紀 8, 後主 5年 2月條)

사료 (사)

(唐 開元 12년 2월, 724년) 丙辰에 黑水靺鞨 大首領 屋作箇가 내조하고, 達莫婁 大首領 諾皆諸가 내조하니, 모두 折衝都尉에 제수하고, 蕃으로 돌아가게 하였다.¹⁵⁾

(『冊府元龜』 卷975, 外臣部 褒異 2, 開元 12年 2月條)

485년 전후 처음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두막루는 위의 기록에서처럼 567년과 569년에는 北齊에 사신을 보내며 간간히 사서 상에 등장하고 있다. 그 이후로 다시 150여 년간 기록이 없다가 723년에 達婁와 함께 達末婁(두막루)의 수령이 唐에 조공하였다는 기사가 확인된다[앞서의 사료 (다)]. 그리고 사료 (사)에서처럼 724년에는 黑水靺鞨과 함께 達莫婁(두막루)의 대수령 諾皆諸가 唐에 내조하고 관직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724년 내조 기록을 끝으로 두막루는 사서 상에 자취를 감춘다. 곧 역사 상에 나타난 그들의 동향은 5세기 후반부터 8세기 전반까지 대략 3세기 간에 걸쳐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단편적인 기록만을 가지고 이 시기 두막루의 역사 전개를 구명한다는

13) 『北齊書』 卷8, 帝紀 8, 後主 3年 10月條, “冬十月 突厥·大莫婁·室韋·百濟·靺鞨等國, 各遣使朝貢.” 『冊府元龜』 卷967, 外臣部 朝貢 2, 天統 3年 條에서도 동일 기사가 전한다.

14) 『北齊書』 卷8, 帝紀 8, 後主 5年 2月條, “癸酉, 大莫婁國遣使朝貢.”

15) 『冊府元龜』 卷975, 外臣部 褒異 2, 開元 12年條, “[十二年 二月] 丙辰, 黑水靺鞨大首領屋作箇來朝, 達莫婁大首領諾皆諸來朝, 並授折衝, 放還蕃.” 『冊府元龜』 卷967, 外臣部 朝貢 2, 天統 5年 條에서도 동일 기사가 전한다.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다만, 이들 기록과 해당 시기 동북 지역의 국제 정세를 함께 조망한다면 6~8세기 두막루 역사의 전개에 관해서도 약간의 탐색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짚어볼 점은 두막루가 485년 무렵 처음으로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며 국제 무대에 등장하였지만, 이후 약 80여 년 동안 다시 사서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장기간의 기록 공백을 단순히 사료 상의 누락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당시 두막루가 처해 있던 정치적·군사적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막루는 본래 부여 세력권 북부에 거주하던 주민 집단이 고구려의 북방 진출 과정에서 동류 송화강 이북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정치체였다. 그리고 그들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자립해 가던 5세기 후반 무렵 북만주 일대에서는 물길 세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었다. 사료 (나)에서 물길이 “東夷最强”이라 평가되고 있는 사실은 당시의 정세를 잘 보여준다. 실제로 이 시기에 물길은 동류 송화강 유역으로부터 북류 송화강 유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며 吉林市 북쪽으로부터 동류 송화강 이남에 이르는 지역을 장악하였고(이종수, 2011: 30), 그 결과 두막루는 부여 본국과의 연결이 완전히 단절된 채 동류 송화강 이북 지역에서 자립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물길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다.¹⁶⁾

한편, 당시 북만주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조망함에 있어 고구려의 역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 고구려는 만주 중남부 일대로부터 요동반도에 걸친 교통로와 교역망을 장악하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한 축으로 군림하였다. 특히 5세기 후반 고구려는 북방으로는 물길 세력의 남하를 견제하는 한편, 거란·지두우 등 북방의 여러 종족 집단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이재성, 1996: 173-177).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 북방에 위치해 있던 두막루가 고구려의 감시를 뚫고 독자적으로 중원왕조와 교섭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막루가 485년 이후로 장기간 사서에서 자취를 감춘 배경에는 물길의 압박뿐 아니라 요동 지역 교통망을 장악하였던 고구려의 영향력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당시 두막루가 중원 지역으로 사신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요동 방면을 경유하거나 혹은 물길이 활용하였던 북방 교통로(이승호, 2023: 132-137)를 이용해야만 했는데, 당시 두막루는 물길의 압박과 고구려의 감시 속에서 이러한 장거리 외교 활동을 독자적

16) 이와 관련하여 485년 무렵 北魏에 대한 大莫廬國·覆鍾國·莫多回國 등 12국 조공의 배후에는 당시 이들 국가를 복속하였던 물길이 있었고, 이들 12국을 조공토록 하여 북방의 강력한 세력으로 발돋움한 물길의 위상을 과시한 것이라는 견해도 주목된다(김락기, 2013: 84).

으로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5-6세기 동북아시아 북방 지역은 고구려·물길·실위 등 여러 세력이 경쟁하던 공간이었으며, 두막루와 같은 중소 규모 정치체가 독자적으로 중원왕조와 교섭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그렇다면 485년 북위에 대한 두막루의 사행은 이들이 독립적인 정치체로 자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회적 외교 활동이었던 것으로 이해되며, 이후 약 1세기 동안 이들의 동향이 사료 상에 포착되지 않는 이유는 지속되는 물길의 압박과 고구려의 교통로 통제 속에서 독자적으로 대외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일 것이다. 『魏書』에 두막루 관련 기록이 남게 된 것은 바로 이 시기 이루어진 북위와의 접촉 덕분이었지만, 이후의 정세는 그러한 외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6세기 후반에 이르러 두막루는 다시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낸다. 사료 (마)와 (바)에 따르면, 이들은 567년과 569년 두 차례에 걸쳐 大莫婁 또는 大莫婁國이라는 이름으로 북제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는 485년 이후 처음 확인되는 두막루의 대외 활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567년의 기록은 당시 두막루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해당 기사에는 두막루와 함께 突厥·失韋·百濟·靺鞨 등이 동시에 북제에 사신을 파견하였다고 전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 대부분이 당시 고구려와 직·간접적으로 대립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세력이었다는 사실이다. 돌궐은 북방 초원지대를 장악하고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며 6세기 중반 무렵에는 동쪽으로 고구려와 충돌하는 등 세력 팽창에 나서고 있었고(이재성, 2018: 287-290), 백제 역시 신라 및 고구려와 대립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실위와 말갈은 고구려의 북방 정책과 긴밀히 관련된 세력이었다.

이처럼 6세기 중엽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다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북중국에서는 北齊와 北周가 대립하고 있었고, 초원지대에서는 돌궐이 급속히 성장하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 나갔다. 이러한 가운데 고구려는 북제·북주 양국과 모두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자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 북제는 북방에서 새롭게 등장한 돌궐을 경계하며 고구려를 비롯한 주변 여러 세력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이성제, 2005: 145-146, 161-163). 이러한 국제 정세를 고려하였을 때, 567년의 기록에서 돌궐·실위·말갈·두막루·백제가 같은 시기에 북제에 사신을 파견한 것을 그저 우연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이는 북제가 고구려를 포함한 동북 방면의 국제질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된다. 즉 당시 북제는 고구려 주변의 여러 정치집단과 외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북방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고, 두막루 역시 이러한 국제 정세를 감지하고 북제와 직접 교섭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시기 북만주 일대의 종족 집단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던 점도 주목된다. 6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사서에 물갈과 함께 말갈이라는 이름이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단순히 명칭의 변화라기보다 북만주 사회의 세력 재편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김락기, 2013: 115-129). 즉 물갈 사회를 구성하던 여러 집단들이 보다 광범위한 말갈 세계로 분지·변모하면서 새로운 지역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세 변동 속에서 고구려와 여러 말갈 집단 사이에도 복속·이탈·군사적 충돌이 반복되며 새로운 관계 형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 상에 말갈이 때로는 고구려에 예속된 세력으로, 때로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복합적인 관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두막루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말갈 세력과의 접촉을 확대하며 새로운 지역 질서 속으로 점차 편입되어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567년 北齊에 대한 조공은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靺鞨의 對北齊 사행과 함께 이루어진 두막루의 대외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북방 지역에서 급격히 세력을 확대해 가던 突厥·靺鞨과 함께한 이때의 사행은 두막루가 변화하는 북방 정세 속에서 이들과 일정하게 외교적 보조를 맞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어서 이루어진 569년의 단독 사행은 두막루가 그러한 지역 질서 속에 편입되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 나름의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하려 하였던 노력으로 읽힌다.

그러나 6세기 후반의 이러한 대외 활동 이후 두막루는 다시 약 150여 년 동안 사서에서 자취를 감춘다. 이러한 장기간의 공백은 두막루 사회가 이 시기 심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음을 추정케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막루는 동류 송화강 이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7세기에 들어 흑수말갈 세력이 급속히 성장한 공간이기도 하였다. 특히 흑룡강 중·하류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흑수말갈은 주변의 여러 집단을 흡수하며 점차 북방 최대 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두막루가 위치하였던 동류 송화강 이북 지역 역시 흑수말갈의 세력 확장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막루 역시 그 영향으로부터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무렵부터 두막루는 독립적인 정치체로 존속하기보다는 흑수말갈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북만주 질서 속에 점차 편입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세기에 들어서면 고구려와 말갈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수·당과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고구려는 북방 말갈 집단을 적극적으로 군사 체제 안에 편입하였으며, 일부 말갈 세력은 고구려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모든 말갈 집단이 고구려에 종속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동류 송화강으로부터 흑룡강 유역에 걸쳐 있는 말갈 집단들은 점차 독자성을 강화하며 흑수

말갈 세력으로 성장하였고, 唐 역시 이들을 활용하여 발해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 두막루 역시 점차 흑수말갈 세력권 안으로 편입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6세기까지의 두막루가 고구려·물길·실위 등 세력들 간에 힘의 균형 속에서 일정 정도 정치체의 존속을 도모할 수 있었다면, 7세기 이후로는 흑수말갈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북만주 지역의 정세 속에서 그 독자성을 점차 상실해 갔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변화는 723년과 724년의 기록에서 비교적 희미하게나마 감지할 수 있다. 먼저 723년 두막루 수령은 達姁의 수령과 함께 당에 조공하며 자신들을 “北扶餘之裔”라고 소개하였다. 이는 5세기 후반 이래 유지되어 온 부여 계승 의식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어지는 724년 기사에서는 보다 흥미로운 대목이 보인다. 이때 두막루의 대수령 諾皆諸는 흑수말갈 대수령 屋作箇와 함께 당에 내조하였으며, 양자는 동일하게 折衝都尉의 관직을 제수받았다고 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諾’이라는 두막루 수령의 성씨이다. 「諾思計墓誌」에 대한 분석을 통해 ‘諾’ 씨가 당에 귀부한 말갈 수령층에서 확인되는 성씨임을 지적한 연구를 참고한다면(조재우, 2022: 138), 8세기 전반 두막루의 지배층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말갈화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이 시기의 두막루는 여전히 부여의 후예를 자처하고 있었지만, 실제 정치적·사회적 기반은 말갈 사회 안에서 유지되고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 더구나 諾皆諸가 흑수말갈 대수령과 함께 당에 입조하고 동일한 관직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두막루가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확보하고 있었다기보다는 흑수말갈 세력권 내부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음을 시사한다. 즉 8세기 전반의 두막루는 정치적 정체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여 계승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국제질서 속에서는 이미 말갈 사회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어쩌면 이 무렵까지 이들이 達末婁나 達莫婁 즉 ‘두막루’를 칭하며 “北扶餘之裔”를 주장하였던 것은 당시까지도 중원 사회에 남아 있던 부여에 대한 ‘모범적 변국’의 이미지를 그들의 對唐 외교에 활용하고자 하였던 외교술의 일환이었을 지도 모르겠다.

결국 5세기 후반 이후 전개된 두막루의 역사는 부여의 전통을 계승한 북방 정치체가 물길의 성장과 말갈 사회의 확대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점차 그 독자성을 상실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북부여의 후예’라는 역사적 기억을 유지하였지만, 그들이 처한 북만주 지역의 정치질서가 물길에서 말갈, 다시 흑수말갈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점차 말갈 사회와 융합되어 갔다. 723~724년의 기록은 바로 그러한 변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이후 두막루의 동향에 대해서는 黑水靺鞨에 완전히 복속되었다고 보거나, 발해의 북진정책에 의해 발해에 예속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유태용, 2004: 156). 사료상의 제약으로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다만 추측하건대 726년부터 전개된 발해와 당, 흑수말갈 사이의 군사적 갈등 속에서 두막루인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로써 대략 240년에 걸친 두막루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

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사에 보이는 豆莫婁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두막루와 부여의 관계 및 그들이 지녔던 夫餘 出自 의식 형성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8세기 전 반까지 확인되는 두막루의 역사적 동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짚어보았다.

먼저 『魏書』 豆莫婁國 조에 나타나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기사는 단순히 『三國志』 東夷傳 夫餘 조를 축약한 것이 아니라 당대 두막루 사회에 관한 정보가 일정 부분 반영된 기록으로 판단된다. 특히 王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고 豪帥 중심의 읍락 구조가 확인되는 점은 당시 부여와는 다른 그들 나름의 정치 구조와 사회적 특성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두막루는 485년 이미 北魏와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있었으며, 당시까지도 지금의 農安縣 일대에 존속하던 부여 왕실과 병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魏書』에서 두막루를 ‘舊北扶餘’라 칭한 것은 494년 멸망한 부여 왕국의 직접적 계승을 의미한다기보다 두막루 사회가 본래 부여 세력권과 밀접한 관련을 지녔음을 반영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新唐書』에 보이는 “高麗滅其國, 遣人度那河”라는 기록은 광개토왕의 동부여 정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4세기 전반 고구려가 吉林市 일대 부여 영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여계 주민집단이 동류 송화강 이북으로 이동한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들은 이후 물길 세력의 성장으로 인해 부여 본국과의 연결이 단절되면서 독자적인 정치체로 자립하였고, 그것이 곧 두막루국의 형성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막루의 언어가 失韋·庫莫奚·契丹 등과 같았다는 기록은 두막루를 구성한 집단이 종족적으로는 북방계 주민이었음을 시사한다. 즉 두막루는 예맥계 주민이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형성한 국가라기보다 본래 부여 세력권 북부

에 거주하던 북방계 주민집단이 부여의 정치체제와 문화 전통 속에 편입되어 있었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은 두막루인들의 부여 출자 의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들이 ‘北扶餘之裔’를 자처하였던 것을 그저 외교적 필요에 따른 정치적 수사였다고만 볼 수는 없다. 실제로 두막루 사회에는 부여의 유속이 일정 부분 계승되고 있었으며, 부여에 대한 기억 또한 집단 내부에서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출자의식은 중원 왕조와의 외교 관계에서 부여가 지닌 상징적 위상을 활용하려는 정치적 목적과도 결부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자신들이 부여 전통의 계승자라는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정체성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6~8세기 두막루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는 물길의 성장과 말갈 사회의 확대 그리고 흑수말갈 중심 질서의 형성이라는 북만주 지역의 거대한 변동 속에서 전개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두막루는 오랫동안 부여 계승 의식을 유지하였으나 점차 말갈 사회와 융합되며 독자성을 상실해 갔다. 723년과 724년의 기록은 이러한 변화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후 두막루는 흑수말갈 또는 발해 중심의 새로운 지역 질서 속으로 흡수되면서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볼 때, 결국 두막루인들의 夫餘 出自 의식은 4~5세기 동북아시아 북방세계의 정치 변동과 주민 이동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기억의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두막루를 단순히 부여의 유민이 세운 국가 정도로 치부하기보다는 북방계 주민 집단과 부여의 정치적 전통이 결합한 정치체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두막루의 역사는 고대 동북아시아 세계에서 특정 정치체의 멸망 이후에도 그 정치적 전통과 출자의식이 새로운 지역과 집단 속에서 재구성·계승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투고일: 2026.04.30, 심사개시일: 2026.05.21, 게재확정일: 2026.06.07.

참고문헌

- 강인욱, 2015, 「三江平原 滾毛嶺·鳳林문화의 형성과 勿吉·豆莫婁·靺鞨의 출현」, 『고구려발해연구』52: 107-147쪽.
- 김락기, 2013, 『고구려의 東北方 境域과 勿吉 靺鞨』, 파주: 경인문화사.
- 김정배, 1991, 「豆莫婁國 研究」, 『國史館論叢』29: 70-80쪽.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파주: 사계절.
- 박경철, 1992, 「부여사 전개에 관한 재인식 시론」, 『백산학보』40: 23-73쪽.
- 여호규, 1995,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한국사연구』91: 1-39쪽.
- 여호규, 2000,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36: 35-71쪽.
- 여호규, 2018, 「5세기 후반 高句麗·勿吉의 충돌과 북방 接境空間의 변화」, 『중앙사론』47: 155-209쪽. <https://doi.org/10.46823/cahs.2018.47.155>
- 유태웅, 2004, 「豆莫婁國 興亡史 研究 試論」, 『백산학보』70: 141-159쪽.
- 이성재,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연구』, 고양: 국학자료원.
- 이승호, 2020, 「부여의 쇠퇴·멸망 과정과 王室 일족의 동향」, 『동국사학』68: 119-159쪽. <https://doi.org/10.22912/dgsh.2020..68.119>
- 이승호, 2023, 「古代 滿洲의 水路交通과 松花江」, 『白山學報』127: 125-144쪽. <https://doi.org/10.52557/tpsh.2023.127.125>
- 이승호, 2024, 「동부여의 국가 성격과 문화 기반」, 『한국고대사탐구』46: 179-215쪽. <https://doi.org/10.35160/sjekh.2024.4.46.179>.
- 이재성, 1996, 『古代 東蒙古史研究』, 파주: 법仁文化社.
- 이재성, 2018, 『고구려와 유목민족의 관계사 연구』, 서울: 소나무.
- 이종록, 2026, 「5~6세기 물길의 부여 진출과 두막루」, 『동북아역사논총』91: 101-145쪽. <https://doi.org/10.23037/dyn.2026..91.003>
- 이종수, 2011, 「三江平原地域초기철기문화의 특징과 사용집단 분석」, 『고구려발해연구』41: 9-36쪽.
- 이종수, 2018, 「부여 강역 연구현황과 쟁점」, 『백산학보』110: 33-52쪽. <https://doi.org/10.52557/tpsh.2018.110.33>
- 조재우, 2022, 「말갈 투항수령 낙사계에 대하여 -「諾思計墓誌」의 분석을 중심으로-」, 『목간과 문자』28: 119-165쪽. <https://doi.org/10.35302/wdis.2022.06.28.119>
- 한상현, 2023, 「백제부여출자설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한국고대사연구』111: 331-362쪽. <https://doi.org/10.37331/JKAH.2023.9.111.331>
- 董萬倫, 1987, 『東北史綱要』,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 于志耿, 1984, 「古代橐離研究」, 『民族研究』1984-02: 1-7쪽.

- 魏國忠, 1982, 「豆莫婁考」, 『學習與探索』1982-03: 136-142쪽.
- 李健才, 1986, 『東北史地考略』,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 李德山·欒凡, 2003, 『中國東北古民族發展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張博泉, 1982, 「《魏書·豆莫婁傳》中的幾個問題」, 『黑龍江文物叢刊』1982-02: 35-38쪽.
- 馮家昇, 1937, 「豆莫婁國考」, 『禹貢』半月刊 第1·2·3合期.
- 白鳥庫吉, 1910-1913, 「東胡民族考」, 『史學雜誌』21-24 (1970, 『白鳥庫吉全集』 4, 岩波書店 재수록).
- 津田左右吉, 1915, 「勿吉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1: 1-61쪽. <https://doi.org/10.15017/2339077>
(1964, 『津田左右吉全集』 12, 20-37쪽, 東京: 岩波書店. 재수록).

References

1. Secondary Sources in Korean

- Han, Sanghyun. 2023. "Historical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Baekje Royal Family's Origin of Buyeo."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111: 331-62. <https://doi.org/10.37331/JKAH.2023.9.111.331>.
- Jo, Jaewoo. 2022. "A Study on the Mohe(靺鞨) surrenderer Nuo-Siji(諾思計)."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28: 119-65. <https://doi.org/10.35302/wdis.2022.06.28.119>.
- Kang, Inuk. 2015. "Formation of Guntuling and Fenglin archaeological cultures in Sanjiang Plain and its correlation with Wujǐ, Doumolou and Mohe peoples." *The KoguryoBalhae Yonku* 52: 107-47.
- Kim, Jung-bae. 1991. "A Study on Dumolu State." *Treatises on Korean History* 29: 70-80.
- Kim, Rak-Gi. 2013.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Northeastern Boundary of Koguryo(高句麗)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Mulgil(勿吉)·Malgal(靺鞨) in 5th~7th Century*. Paju: Kyungin Publishing Co.
- Noh, Tae-don. 1999. *A Study of Goguryeo History*. Paju: Sakyejul Publishing.
- Park, Kyung-chul. 1992. "A Preliminary Re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of Buyeo History." *The Paek-San Hakpo* 40: 23-73.
- Lee, Jae-sung. 1996. *A Study on the Ancient History of Eastern Mongolia*. Paju: Bubin Publishing.
- . 2018.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guryeo and Nomads in Northern Asia*. Seoul: Sonamoo Publishing.
- Lee, Jong-Rok. 2026. "The Wujǐ's Advance into Buyeo and Dumolu in the Fifth and Sixth Centuries."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Dongbuga Yeoksa Nonchong] 91: 101-45. <https://doi.org/10.23037/dyn.2026..91.003>.
- Lee, Jong-Su. 2011. "The character of early iron culture and the analysis of groups in the Sanjiang Plain." *The KoguryoBalhae Yonku* 41: 9-36.
- . 2018.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researches about Buyeo Territory." *The Paek-San Hakpo* 110: 33-52. <https://doi.org/10.52557/tpsh.2018.110.33>.
- Lee, Sung-je. 2005. *On The western policy of Koguryo in the 5~6th century*. Goyang: Kookhak Publishing.
- Lee, Seungho. 2020. "The Process of Decline and Fall of Buyeo and the Trend of Royal Family." *The Dongguk Historical Review* 68: 119-59. <https://doi.org/10.22912/dgsh.2020..68.119>.

- . 2023. “The Water Transportation of Ancient Manchuria and Songhua River.” *The Paek-San Hakpo* 127: 125–44. <https://doi.org/10.52557/tpsh.2023.127.125>.
- . 2024. “Eastern Buyeo’s National Character and Cultural Foundation.” *Historical Vistas* 46: 179–215. <https://doi.org/10.35160/sjekh.2024.4.46.179>.
- Yeo, Hokyū. 1995. “The Traffic Route and the Local Ruling System of Koguryō from the Latter 3rd Century to the early 4th Century.”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91: 1–39.
- . 2000. “Changes in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and in the Foreign Policy of Kogury in the 4th Century.” *Quarterly review of Korean history* 36: 35–71.
- . 2018. “Conflicts Between Koguryō and Mulgil(勿吉) in the Late 5th Century, and Changes in the Northern Border Areas.” *Chung-Ang Saron* 47: 155–209. <https://doi.org/10.46823/cahs.2018.47.155>.
- Yu, Tae-Yong. 2004. “A Study of Rise and Fall of Dumaty State.” *The Paek-San Hakpo* 70: 141–59.

2. Secondary Sources in Chinese

- Dong Wanlun. 1987. *Dongbei shi gangyao(Outline of the History of Northeast China)*. Harbin: Heilongjiang People’s Publishing House.
- Feng Jiasheng. 1937. “Dumolou kao(An Examination of the State of Dumolu).” *Yugong(禹貢) Bi-monthly*, combined nos. 1–3.
- Li Deshan and Luan Fan. 2003. *Zhongguo Dongbei gu minzu fazhan shi(A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Ancient Ethnic Groups in Northeast China)*. Beijing: China Social Sciences Press.
- Li Jiancai. 1986. *Dongbei shidi kaolue(A Brief Study of the History and Geography of Northeast China)*. Changchun: Jilin Literature and History Publishing House.
- Wei Guozhong. 1982. “Dumolou kao(An Examination of Dumolu).” *Xuexi yu tansuo(學習與探索)*, no. 3: 136–42.
- Yu Zhigeng. 1984. “Gudai Tuoli yanjiu(A Study of Tuoli Culture).” *Ethno-National Studies(民族研究)*, no. 2: 1–7.
- Zhang Boquan. 1982. “Wei shu Dumolou zhuan zhong de jige wenti(Several Issues in the ‘Biography of Dumolu’ in the Weishu).” *Heilongjiang wenwu congkan(黑龍江文物叢刊)*, no. 2: 35–38.

3. Secondary Sources in Japanese

- Shiratori Kurakichi, 1910-13. "Tōko minzoku kō(A Study of the Donghu Peoples)." *Shigaku zasshi* 21-24. Reprinted in *Shiratori Kurakichi zenshū*, vol. 4. Tokyo: Iwanami Shoten, 1970.
- Tsuda Sōkichi, 1915. "Mokkitsu kō(An Examination of Wuji)." *Mansen chiri rekishi kenkyū hōkoku* 1: 1-61. <https://doi.org/10.15017/2339077>. Reprinted in *Tsuda Sōkichi zenshū*, vol. 12, 20-37. Tokyo: Iwanami Shoten, 1964.

Abstract

The History of Dumolu and Their Consciousness of Buyeo Ancestry

Lee, Seung-ho

(HK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Korea Plus, Dongguk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Dumolu (豆莫婁) and the formation of their consciousness of Buyeo descent through an analysis of relevant accounts in Chinese dynastic histories. The Weishu (魏書) describes Dumolu as “Old Northern Buyeo” (舊北扶餘), while the Xin Tangshu (新唐書) records that the Dumolu people identified themselves as “descendants of Northern Buyeo” (北扶餘之裔).

The article argues that the account of Dumolu in the Weishu was not merely a reproduction of earlier records concerning Buyeo, but reflected certain contemporary realities of Dumolu society. It also demonstrates that Dumolu had already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ern Wei by 485 and coexisted with the remaining Buyeo kingdom before its surrender to Goguryeo in 494.

Furthermore, this article reinterprets the statement in the Xin Tangshu that “Goguryeo destroyed their state, and its people crossed the Na River.” Rather than associating this event with Goguryeo’s conquest of Eastern Buyeo, the article argues that the passage reflects the migration of groups from the Buyeo sphere during Goguryeo’s expansion into the Jilin region in the early fourth century. Dumolu thus emerged as an independent polity formed by communities that had moved north of the eastward-flowing Songhua River.

The article also highlights the record that the language of Dumolu resembled those of Shiwei, Kumoxi, and Khitan. This suggests that the people of Dumolu were originally northern tribal groups that had long been incorporated into the Buyeo political sphere. Consequently, Dumolu should be understood as a polity that inherited the political traditions and cultural legacy of Buyeo despite its northern ethnic background.

The Dumolu people’s consciousness of Buyeo descent was therefore not merely a political claim. It was rooted in the preservation of Buyeo traditions and historical memory, while also serving diplomatic purposes in relations with the dynasties of Central China. Ultimately, Dumolu provides an important example of how the political traditions and

historical identity of a vanished polity could be reconstructed and inherited by new communities in ancient Northeast Asia.

Keyword : Dumulu, Buyeo, Northern Buyeo, Mohe, Heishui Mohe, consciousness of descent